



2016 서울대학교 합격 자기소개서

일반전형 인문대학 언어학과

# VERITAS 서문 LUCMEA

대입 수험생들이 마주할 ‘자기소개서’라는 작문과제는 어떻게 써야 하나,  
잘 써야죠. 그래야 지원 대학에 합격할 테니까요.

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 남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가?  
그럼요! 그것도 최대한 여러 개를요.

수험생은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서  
어떻게 시작해야 할지,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, 어떤 어휘를 써야 할지까지  
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.

자기소개서가 급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,  
합격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힌트를 얻고 수험생 라이프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

그럼 여러분이 돈을 내고서까지 합격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하는가?  
그렇지 않아요.

자신의 글쓰기 실력에 자신이 있거나, 주위 선배들에게 부탁해서 자소서를 얻어낼 수 있다면  
그럴 필요 없어요.  
문항별 질문의 의도에 순수하게 답하면서,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다만 대입 자소서라는 망망대해에서 누군가에게 등대가 될 수 있을까 싶어  
감사한 마음으로 게시하고자 합니다.

이 자료를 계속 읽고자 하던, 그렇지 않던,  
본인에게 최고의 선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고등학교 생활을 매듭지은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,  
담임선생님보다, 과외선생님보다, 어쩌면 부모님보다  
수험생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.

저의 3년이 푹푹 눌러 담긴 자기소개서 게시를 시작으로,  
앞으로 여러 주제의 칼럼을 쓸 생각입니다!

건강 관리, 내신 공부법, 변형문제 비교과 활동까지  
모든 자료를 토해내겠습니다.

그제야 3년 치 일기를 완성하게 된 감사한 마음으로 대입 과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거나,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를 위해  
연락처를 남깁니다.

‘오르비/atom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’ 라고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